

# '화100'을 보셨나요?



홍경안 역  
시시일각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얼마 전 막을 내린 미술 오디션 프로그램 '화100'(MBN)을 시청한 이는 얼마나 될까. 모르긴 해도 알 사람은 알았을 것이고 볼 사람은 봤을 것이다. 사회적 화제까지 아니었지만, 적당히 회자되고 외면받지는 않았구나 싶을 만큼의 이야깃거리가 됐을 것이라 여겨지니 말이다.

실제로 심사위원으로 함께한 필자의 경험도 그랬다. 최근 미술계 현장에서 만난 미술인들은 가장 먼저 '화100' 얘기부터 꺼냈다. 연락 뜸하던 학창시절 동기들의 안부 속에도,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일반인들의 인사말에도 '화100'은 자주 등장했다. (방송으로 연장된 비평 직능이 흑자에겐 흥미로웠던 모양이다.)

'화100'은 논쟁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곧잘 비교되는 '아트스타코리아'(CJ E & M)에 견주면 확실히 그렇다. 사실 국내 최초의 미술 서바이벌을 내세운 '아트스타코리아'는 2014년 방송 당시 상당한 관심

을 받았다. 미술을 어떻게 정량화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에서부터 목적을 부여하는 미션에 대한 미학적 이견까지, 그야말로 방송 내내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본방 전부터 빗발치던 전문가들의 비판은 '아트스타코리아'를 뜨겁게 달궜고, "예술의 상업화를 부채질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립미술관이 후원에 나서면서 논쟁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그리고 그 논란 내에는 미술과 방송의 관계, 예술과 구조의 문제, 예술가의 삶의 방식 등, 여러 담론을 생성하는 성과도 들어 있었다.

그게 10년 전이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지금은 누구도 예술의 상업화를 말하지 않는다. 미술인들은 오래전부터 이어온 미술계 내 등수 매기기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만은 무관하다는 듯한 전문가들의 태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순응적 가치 체계를 만들어 온 주체들의 객쩍은 소리 역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특히 미술을 포함해 음악, 요리, 모델 등의 온갖 유사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방송에서의 '경쟁'을 대하는 대중의 인식도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또한 스스로 계획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존중하

는 사회적 분위기는 방송 출연만으로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조차 포박한 채 예술의 순수성과 예술가의 태도를 놓고 예민하게 반응하던 양태마저 소멸시켰다.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든, 아티스타가 되기 위해 혹은 작가 자신과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든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 삶의 문제여 기다. 미술계도 마찬가지다. 이는 예술과 예술가를 엄격하게 정의하며 장르를 구분 지던 '아트스타코리아' 때와는 사뭇 다른 현상이다.

'화100'은 재미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참가자들의 인간적인 이야기와 감정을 잘 살려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공감 이끌어낸 결과로 보인다. 다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특성상 예술적 논의나 작품 분석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만약 향후 '화100'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신진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예술의 본질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술평론가

# 뱅크의 양심



기지수첩  
이승용  
(금융부)

축구경기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다. 바로 독일의 전설적인 공격수 미로슬라프 클로제의 '양심 선언'이다.

경기 중 자신의 손에 맞고 골대로 들어가 자신의 득점으로 인정된 골을 스스로 반칙을 인정, 곧바로 주심에게 어필해 득점을 취소시켰다. 침묵을 했다면 자신의 득점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해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이처럼 양심은 사람이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충돌하는 행위를 저지를 때 느끼는 감정으로 직장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최근 3년간 은행권에서는 횡령·배임 사고가 줄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BNK

경남은행에선 15년 장기근무자가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은행에서는 700억원과 180억원의 횡령,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도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빈번히 발생하는 횡령·배임 사고를 막고자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구조도'를 도입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불리는 책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관리 의무 이행 실패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직접 물을 수도 있어 금융당국은 단기간에 내부통제 강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책구조도에 대한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않다. 결국 은행들의 말뿐인 '내부통

제 강화' 약속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을 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회사들의 자체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으로는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에 역부족인 건 사실이다.

결국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이 중요하다. 돈을 다루는 금융권 직원의 만큼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양심을 팔고서 얻은 돈이 값진 것인지 돌아켜 볼 필요가 있다.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금융권에서의 잘못은 책임 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스포츠에만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는게 아니다.

/lsy266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11일 (음 6월 6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망해 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48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가는 일을 그르친다. 60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72년생 지금 주변이 수 상하니 말조심해야. 84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해.
- 소** 37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도 생각. 49년생 걱정은 버리고 과감하게 행동해라. 61년생 먼저 주면 다시 큰 것을 얻는다. 73년생 재물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 85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 호랑이** 38년생 앞에 나서게 되나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는다. 50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 친 운동을 삼가라. 62년생 날세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라. 74년생 오늘 오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86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해야.
- 토끼** 39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보람이 있다. 51년생 오늘은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 영을 받는다. 63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다. 75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다. 87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승진 소식이 있겠다.
- 말** 40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발생. 52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도 들어온다. 64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 76년생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처럼 수동적이기보다는. 88년생 여러 가지로 오늘 행운이다.
- 뱀** 41년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 53년생 인정은 변하기 쉬우나 그래도 양 보를 해 보라. 65년생 나도 언행이 맞지 않을 때가 있으니 타인을 배려. 77년생 직장 에서 게을러지지 않기를. 89년생 쥐 날이니 즐거움 모임 약속 있다.
- 닭** 42년생 걸이 다르고 속 다른 것이 사람인데. 54년생 개구리 울창이 적 생각 못 한다. 66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먼저 손질해서 놓아야 한다. 78년생 오늘은 영업결과 는 이익이다. 90년생 우물거에서 송봉 찾지 말고 일은 순서대로 해 보자.
- 양** 43년생 무심결에 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55년생 운전할 때 이리저리 가봤자 오 분 상판이다. 67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든 시작. 79년생 병도 약도 다 제 할 탓이니 조심. 91년생 독단적인 일 처리는 가족에게 원망 산다.
- 원숭이** 44년생 하늘이 푸르니 마음에서 희망이 보인다. 56년생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 68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사니 조심할 것. 80년생 뒷사람과 의 불화가 의심되니 나서지 마라. 92년생 영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니 감사.
- 닭** 45년생 돈에 따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이 현실. 57년생 욕심이 화가 되 니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마라. 69년생 지식 자랑에 입이 쉬지 않는다. 81년생 기쁨 은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도록. 93년생 오후 운전조심.
- 개** 46년생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게 어 다르니. 58년생 달콤한 속삭임이 있으니 투자조 심. 70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매매가 성사되기 어렵다. 82년생 오늘 조심해라 돌다리 도 두드리고 가야 한다. 94년생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려면 어찌 될까.
- 돼지** 47년생 가장 큰 미덕은 허를 구속할 줄 알아야 한다. 59년생 망설이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 71년생 흘러가는 대로 버려두라. 83년생 빗의 말에 기본 이 상대도 이해. 95년생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니 잔소리 꼭대기 조심.

# 김상회의 4계절 인공지능과 사주학



존재란 무엇일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일갈했던 데카르트의 말이 아니라도 문명을 발전시킨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유가 생각하고 사유하는 능력과 기능 직관과 통찰 때문이 아닐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물리가 트이는 지혜의 습득이야말로 인간들의 고유한 능력이다. 그래서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인류는 과학을 발전시켜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던 달나라는 물론 저 먼 우주에까지 탐사선을 보내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마음은 알 수가 없다.

웃는 얼굴 다정한 태도라 해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게 바로 사람 마음속이니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세상사 사기나 고통은 반 이상 줄어 들 수 있다. 글썽, 요즘 인공지능 AI가 못 하는 게 없으니 독심술까지 해낼지도 모를 일이다. 오히려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날도 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우려하는 판이다. 그러나 AI가 없던 시절에는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을까. 예나 지금이나 우선 관심이 일차적이었던 것이다. 단지 표정으로 기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 복까지도 아는 것이 가능하다.

관상은 단지 얼굴 모양새만 보는 것이 아니다. 골상이라 하여 뼈의 형태와 단단함 그 뼈에 붙은 살의 많고 적음 역시 기질과 운명을 아는 좋은 보조가 된다. 그러나 사람을 읽는 수단의 백미는 역시 타고난 사주 구성 아니겠는가. 연월일시야말로 자연인 한 인간의 읽을 수 있는 첩경이다. 성격 성품 수명 재물 명예와 고난은 물론 인간관계 그 어느 것 다뤄지지 않는 것이 없다. 무릇 해와 달과 별의 운동에 기반한 선인들의 통찰은 그 시대의 AI가 아니었는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알고리즘을 공개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8	8	9	1	7	2	7
2	7	9	6	1	7	9	8	8
1	8	2	9	8	7	6	9	9
9	9	8	1	8	6	1	7	7
2	1	6	7	2	9	8	9	8
9	8	7	9	2	8	2	1	6
8	6	1	8	7	9	9	2	7
7	9	2	8	8	2	6	8	1
8	2	2	9	6	1	8	7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7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7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